

‘4차산업 교육 중심’ 목포시, AI 메타버스 센터 인기

미래인재양성 무료 취업교육
내년 3월 수료, 현장에 투입

목포시는 청년스마트도시 조성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0월 옛 청호중학교에 구축한 ‘AI 메타버스 센터’가 청년과 주민들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I 메타버스 센터’는 지난 10월11일 ‘인공지능(AI) 융합서비스 개발자 과정’을 시작으로 무료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수강생들은 내년 3월께 교육을 수료하고 취·창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AI 메타버스 센터’는 27일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과정’을 개강할 예정으로 26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공유·개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진행 중이다.

‘AI 메타버스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에는 목포시뿐 아니라 인근 지역 학교의 많은 관심으로 12월 중순 현재 3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체험 프로그램은 헤드셋을 활용한 가상현실(VR) 체험, 태블릿을 활용한 가상캐릭터 만들기, 확장현실(XR)을 활용한 운동·모험·영상 체험, 크로마키 영상 촬영, 인공지능 교육, 로봇 자율주행 실습 등이 있다.

참여자지는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4차산업을 주도할 신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AI 메타버스 센터’는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이 협력해 구축한 디지털



목포시가 청년스마트도시 조성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10월 옛 청호중학교에 구축한 ‘AI 메타버스 센터’가 청년과 주민들에 인기를 얻고 있다. 목포시 제공

융합훈련 기반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교육, 체험 프로그램, 시설장비 공유·개방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 및 체험 신청 문의는 ‘AI 메타버스 센터’(061-285-2888)로 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무안군, 지역 물가안정 기여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6개 업소를 하반기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연이은 고물가 시대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업소별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군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 평가를 거쳐 6개 업소(외식업 5, 숙박업 1)를 신규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업소에 지정서 및 인증표찰을 교부하고, 업주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무안군 홈페이지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업소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무안군은 지난 10월부터 지방물가 안정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환급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본 행사는 무안군 지정 착한가격업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 합산 이용금액에 따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최대 월 1만 5000원까지 환급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사랑 愛 김장김치 나눔행사
목포수협 여성어업인연합 수협분회

목포수협(김정룡 조합장)이 지난 22일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목포수협분회(양경숙 회장) 회원들과 함께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위판장에서 ‘사랑 愛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복지증진을 위해 목포수협에서 진행하는 행사로 소외계층과 어업인, 수산단체 등을 위해 2000포기를 담갔다.

김정룡 조합장은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공헌 활동으로 온정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규 구입 장난감 ‘가득’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해남군이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장난감 33종, 63점을 추가로 구입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에 구입한 장난감은 권장 연령 0~6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체놀이, 음률놀이, 역할놀이, 언어발달 영역의 장난감으로 구성되었다. 세심한 세척과 소독을 거쳐 새해부터 대여를 시작한다.

해남군 장난감 도서관은 163종, 571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보유하고 있다. 소형에서 대형 장난감까지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이 구비되어 영유아 가정에서 대여된다.

지난 2019년 개소 이래 올해는 해남군 가족여울림센터 2층으로 확장 이전해 장난감 전용 장소를 확보하고, 동네카페와 휴게공간도 마련해 부모들이 쉼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장난감 도서관에서 편안히 어울릴 수 있도록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장난감도서관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장난감 소독 등을 위해 일요일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회원가입은 직접 방문 하거나 군민 전용앱인 ‘해남소통넷’에서 가능하며,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목포수협이 지난 22일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목포수협분회 회원들과 함께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위판장에서 ‘사랑 愛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목포수협 제공

“돈버는 군정 눈에 띄네” 해남군, 공모사업 3년 연속 1500억 돌파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등

해남군이 중앙부처와 전남도,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3년 연속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기록을 세웠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중앙부처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127건이 선정돼 사업비 1501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2021년 127건 1884억원, 2022년 130건 1591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 연속 1500억원 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 선정된 공모사업으로는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 425억원을 비롯해 농촌공간정비사업 127억원, 상권

활성화사업 60억원 등이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이면 구성지구에 총 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수산양식기자재 기업단지, 물류센터, 종합지원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 또한 2022년 현산면 시등지구(50억원)에 이어 올해는 산이면 금호지구가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총사업비 127억원을 투입해 산이면 금호지구 폐교와 폐공장, 축사 등 유해시설을 철거하고, 정비된 부지에는 어울림센터, 귀농인임대주택, 다목적작업장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사업도 눈에 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해남읍 내리리 성내리 일원의 상권에 대해 디지털 상권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춘 ‘청정전남 으뜸마을만들기’ 7억원,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2억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 3억원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에도 다수 선정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선별진료소 올해까지 운영

강진군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오는 31일자로 운영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고 코로나19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추이와 보건소의 상시 감염병 관리기능의 정상화를 고려해 강진군은 장기간 운영해 온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12월31자로 종료한다.

다만,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

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된다.

기존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자는 2024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PCR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이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그 외 검사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진=김윤복 기자

아동양육시설 쾌적한 환경 제공
강진군, 복권기금·지방비 활용

강진군이 최근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강진자비원을 대상으로 복권기금을 지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자비원은 지난 1952년 5월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사회복지법인 강진자비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아동의 입소,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3명의 종사자와 42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기능보강사업은 사랑만 지붕 누수에 대한 공사, 배수로 공사, 도배 및 장판 교체, 건물 외벽 도장공사 등으로 아동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 3월 1차 선정에 이어 8월 추가 변경 선정으로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추진했다.

이후 추경예산 반영을 통해 복권기금과 지방비 총 6950만원을 투입, 공사가 한창이다.

강진자비원 박정애 원장은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